

인간적 자유의 현대적 문제

카타야나기 에이이치 (片柳榮一)

백정환 (白正煥) 역

서: 내게만 지정된 문

‘한일신학심포지움 2018’ (제8회한일신학자학술회의)의 주제는 ‘기독교적 인간론’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자유라는 화두에 초점을 맞춰서 현대적인 문제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 문제제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한 단편소설을 먼저 소개함으로써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이 작품은 현대소설의 원류를 만들어냈다고 전해지는 체코의 작가 카프카(Franz Kafka, *Vor dem Gesetz*, 1915)의 ‘법 앞에서’란 단편이다. 짧기에 전문을 인용한다.

법 앞에 문지기가 서 있다. 이 문지기에게 시골에서 온 한 남자가 다가와 법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한다. 그러나 문지기는 지금은 입장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시골 남자는 생각에 잠겼다가 그렇다면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묻는다. 가능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고 문지기가 답한다. 법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느 때처럼 열려있고, 문지기가 옆으로 비켜서 있어서 그 남자는 몸을 구부리고 문 안을 들여다본다. 문지기는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한다. “그렇게 마음이 끌리면 내가 금지해도 무시하고 시험 삼아 한번 들어가보시오. 그러나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명심하는 게 좋을 거요. 하지만 난 최말단 문지기에 불과하지. 문을 지날 때마다 차례로 문지기가 서 있는데 갈수록 힘이 센 사람들이거든. 세 번째 문지기는 아유 생각만 해도 아찔해.” 시골 남자는 이런 어려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모피를 입은 큰 코, 그리고 길고 가느다란 검디 검

프랑클은 수용소에서 처음에는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절망하고 고슴도치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을 죽이며 돌처럼 그 어떤 것도 느끼지 않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사람마다 반응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인간은 결코 벽에 던져진 공처럼 어느 각도에 던져지든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단순하게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절망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막사 안을 여기서는 상냥한 말로, 거기서는 마지막 빵 한 조각을 건네주고 지나가는’ 것이다. ‘이러저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의 눈부신 뜻을 자각하기에 이른다. 단순히 이것저것의 선택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을 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단,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음을 깨달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결단 앞에 선 것이다. 단순히 공처럼 무덤덤하게 상황에 내쳐질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환경 전체에 저항하여 행동의 자유가 있는 자신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2천년 이전에 벌써 스토아 철학의 현자들이 발견했다. 잔혹한 독재자, 황제에 항거하여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유를 자기 자신은 가지고 있고, 그 어떠한 폭군도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프랑클은 이 인간의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전혀 다른 새로운 현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자유를 부정하고자 한다. 심지어 우리의 행동은 DNA로 결정돼 있다는 말이 현재의 유행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클은 단호하게 주장한다. 인간은 각기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다고 말이다. 그리고 이 각기 다른 독자성을 바탕으로 그는 이 책의 마지막에서 매우 중요한 명칭을 부여하게 된다. 바로 ‘삶의 의미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반대로 어떤 생활 목표를 일찍이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떤 생활 내용도 갖지 않은 채 그 생활에 어떤 목적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힘을 잃고 만다. 그 존재의 의미가 그로부터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전히 근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에는 쓰러져간다. 그 어떤 격려나 위로의 말조차 거부하는 그들의 전형적인 말투는 보통 이렇다. ‘나는 더 이상 삶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다. 즉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다른 하나의 문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오스트리아의 정신병리학자인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쓴 ‘밤과 안개’이다. 한 사람의 유대인 의사가 나치 강제수용소의 지옥에서 살아나 그 체험을 그린 작품이다. 프랑클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체포되어 강제수용소에 갇히는 불운을 겪게 된다. 가진 재산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로서의 전도유망한 미래, 아름다운 부인과의 행복한 가정마저도 송두리째 빼앗기고 수용소에 갇히게 된다. 샤워실 앞에서 입고 있던 모든 것이 벗겨지고 물에 씻겨지는 순간 이제까지의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탈탈 털렸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적어도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관찰하는 것만은 계속하겠다고 결심한다.

모든 희망을 박탈당한 고뇌와 절망의 암흑 속에서 인간들이 최초로 무의식 중에 공통으로 느끼는 것은 이 고뇌와 절망의 고통에 익숙해지고자 하는 것이며, 돌처럼 더이상 고통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비상태로 잠들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를 거쳐 프랑클은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한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이며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문장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정신적인 자유, 즉 환경에 대한 자아의 적극적인 태도는 이 일견 절대적인 강제 상태 하에서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영웅적인 실례는 적지 않다. 강제수용소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막사 안을 여기서는 상냥한 말로, 저기서는 마지막 빵 한 조각을 건네주며 지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비록 소수에 불과했을지라도——그들은, 인간이 강제수용소의 인간에게서 모든 걸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나 단 하나, 즉 주어진 사태를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마저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을 증명할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저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존재하며, 수용소의 매일, 매시간이 이런 내적 결단을 내릴, 수 천 기회를 제공했다. 그 내적 결단이란 인간에게서 그 마지막 고유한 것—내적인 자유—를 박탈하고 자유와 존엄을 방기시키며, 외적 조건의 단순한 장난감이라 치부하며 ‘전형적인’ 수용소 죄수로 가두려 하는 환경의 힘에 말려들어가는 가 말려들지 않는가의 결단이다.⁽²⁾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마지막 구절에 있다. 법으로 들어가려고 모든 사람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이 문으로 자신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던 까닭을 묻는 시골 남자의 물음에 ‘이 문은 당신에게만 있기 때문’ 이라고 문지기는 답한다. 웬지 모르게 확 와 닿는 느낌이 있다. 이 단편이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끌었던 것은 문지기의 이 알 수 없는 말로 결말지어지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막연한 느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자신에게만 지정된 문으로 들어가지 못 하고 그 앞에 선 채로 죽어버리는 최후가 어리석기도 하고 슬픈 감정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또한 그 역설도 이 부분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문이 있고 길이 있는 일상생활에서 문이나 길은 모두의 것이며 모두에게 열려진 것이다. 그럼에도 여기서 문지기는 ‘당신에게만 지정된 문이니 다른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고 한다.

이 남자는 문지기에 의해 제재 당해 그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스스로 곤란을 각오하고 극복해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들여보내줄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건너면 두렵지 않다’ 는 식으로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만 지정된 문 곁에 선 채로 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노라면 이 시골 남자에게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카프카의 마음 속 절규가 들려오는 듯한 기분이 든다. 보험국의 관료로서 평범한 생활을 하던 카프카는 자신의 생애가 마치 이 남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 같다. 이 단편이 많은 독자들을 불러 모으고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도 사람들이 여기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 ‘내게만 지정된 문’ 이란 것은 다소 의아스럽다. 웬지 그런 게 어디 있다고, 모두가 함께 하는 공통된 문, 공통된 인생이 있지 않냐고 반박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카프카도 암시만 주고 있을 뿐 이 문이 어떤 문인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다.

I. 삶의 의미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 ‘내게만 지정된 문’ 이란 수수께끼에 하나의 빛, 하나의 힌트를 주는 또

은 그의 턱수염을 꼼꼼히 들여다 본 후 이 남자는 입장을 허락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결심한다. 문지기는 그에게 의자를 내어주며 문 옆에 앉아 있게 한다. 그는 거기에 앉아서 수많은 날과 해를 보낸다. 그는 입장하려고 끝없는 시도와 간청을 하면서 문지기를 지치게 만든다. 문지기는 간혹 그에게 고향에 대한 것 등 여러 가지를 묻지만 그것들은 높은 사람들이 하듯 관심 없고 의례적인 질문들이며, 마지막에 가서 그가 늘 반복해서 한 이야기는 그를 아직 들여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여행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문지기를 매수하는데 쓰기에는 아까울 정도였지만 모두 그에게 써버리고 만다. 문지기는 모든 것을 다 받아 챙기며 그때마다 “내가 이것을 받는 것은 당신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라고 말한다. 여러 해를 보내면서 그 남자는 문지기를 거의 끊임없이 관찰한다. 그는 다른 문지기들은 잊어버리고, 이 첫 번째 문지기가 법으로 들어가는데 유일한 장애물로 생각한다. 그는 불운을 저주한다. 처음 몇 년은 무턱대고 큰 소리로 저주하다가 나중에 늙어서는 혼잣말로 투덜대기에 이른다. 그는 어린애처럼 되어간다. 여러 해 동안 문지기를 관찰하면서 모피 옷깃에 붙어있는 벼룩에게까지 그를 도와서 문지기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부탁한다. 마침내 그는 시력이 나빠지고, 실제로 주위가 어두워진 것인지 아니면 잘못 본 것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게 된다. 그래도 그는 어둠 속에서 법으로 들어가는 문 안쪽에서 새어 나오는 한 가닥의 빛을 발견한다. 이제 그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 죽음을 앞둔 남자의 머릿속에서 이제까지의 모든 삶의 경험이 한 개의 질문으로 응축된다. 남자가 이제까지 한번도 문지기에게 묻지 않은 질문이다. 남자는 문지기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굳어져가는 몸을 일으킬 수조차 없다. 덩치가 남자 쪽이 불리하게 변했기 때문에 문지기는 남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야만 했다. “지금에 와서 뭘 묻는다는 거요? 당신 참 질긴 사람이군” 문지기가 말한다. 남자는 “모든 사람들이 법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데 지난 세월 동안 나 이외에 아무도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었던 건 왜입니까?” 문지기는 그가 죽음에 가까워졌음을 알아차리고 멀어져 가는 그의 뒷전에다 큰 소리로 말한다. “누구도 여기서 허락을 구하지 않지. 왜냐면 이 입구는 오직 당신에게만 있는 거니까. 자, 이제 난 가야 하니 문을 닫겠소.”⁽¹⁾

기대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걸 우리는 배워야 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철학적으로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여기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질문을 받는 자로서 서야 한다. 인생은 우리에게 매일 매 시간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그 질문에 천착하거나 말로써가 아닌, 올바른 행위로써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생이란 결국, 삶의 의미란 문제에 올바르게 대답하는 것, 인생이 각자에게 준 사명을 다하고 매일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³⁾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는 어떤 기대조차 없다고 좌절해가는 사람에 대해 코페르니쿠스적인, 즉 180도의 전환을 요구한다. 확실히 우리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 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그리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한다. 생각을 고쳐먹어 보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어 기대에 배신당하고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면 결국에는 쓰러지고 만다. 그러나 프랑클은 ‘삶의 의미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외치며 사고의 전환을 말한다. 삶에 어떤 기대를 물을 것이 아니라 대답할 자로서의 자각을 요구한다. 질문자의 입장에 설 것이 아니라, 답변자로서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누가 하는 것이냐고, 프랑클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을 믿었으니 답변자로서 자신을 체험했겠지만, 신이나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전환은 기대할 수 없다고 어떤 이들은 반박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프랑클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묻고 있는 것은 그가 처한 절망적인 수용소란 상황 전체이다. 그는 이 상황 전체를 자신에 대한 물음으로 받아들였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다. 그러나 생이별을 당해야만 했다. 유능한 정신의학자로서의 미래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전체가, ‘그런데 너는 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단순히 절망에 저주를 퍼붓는데 그쳤는가, 아니면 이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너보다 훨씬 더 슬프고 고뇌와 절망으로 지친 이들의 곁에서 있었는가. 이는 필연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길이 아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자유의 길’이라는 물음으로 받아들였다.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란 말에 대해 잠깐 생각해보자. 프랑클은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가를 물을 게 아니라, 답변자로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무엇이 주어졌는가를 묻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

진 것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 실생활은 그렇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코 우리 뜻대로만은 되지 않는다. 자신이 갈망하는 직업, 결혼 상대,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 중 99%를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에 대해 집중하며 그에 따라 일희일비한다. 프랑클도 그것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하게 중요하며 가치 있는 일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에 매달리고 집착한다면 문제가 된다. 프랑클은 이와 같은 존재 방식에 대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게 일어나거나 닥쳐오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며, 또 주목할 것은 오히려 그 일 뒤에 숨은 자신의 응답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외부에서 다가온다. 그에 대한 자신의 응답,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어려울뿐더러 본질적인 면은 사람들의 눈에는 가리워져있다. 그러나 보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이런 ‘나’ 만이 내 생활에 대해 나만이 행할 수 있는 응답인 것이라고 프랑클은 말한다.

프랑클은 매일 얼어붙은 황야에서 땅을 파는 노동을 했다. 어두컴컴한 하늘 아래서, 얼어붙은 설원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란 질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답하는 것, 그것 뿐’이라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프랑클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아마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 당해 서서히 잊혀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각오한 듯하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이 물음에 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임을 그는 깨닫게 된다. 결과적으로 과오를 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질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며 ‘내 자리’에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듯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과 카프카의 문제가 기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운명이 인간에게 어떤 고뇌를 주는 한, 인간은 이 고뇌 속에서 하나의 과제, 또한 일회적인 운명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고뇌에 대해, 그가 이 고뇌에 찬 운명과 함께 세계에서 유일하고 한번뿐인 삶을 살고있다는 의식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사

람도 그에게서 고뇌를 가져갈 수 없으며, 그를 대신해 고뇌를 해결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운명에 직면한 그 자신이 이 고뇌를 짊어짐으로써 스스로 고유한 행위를 다하는 것에 대한 단 하나의 가능성만이 존재한다. 강제수용소에 있는 우리에게 그것은 결코 현실에서 동떨어진 사변은 아니었다. 모든 생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생각이었으며, 이 생각이야말로 생명을 구할 길이 없을 때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은 유일한 사상이었기 때문이다.⁽⁴⁾

‘구체적인 운명이 인간에게 어떤 고뇌를 주는 한’ 이라고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프랑클 자신의 문제로 얘기하자면, 히틀러의 나치즘이 유대인인 프랑클에게서 모든 행복과 희망,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빼앗아 버린 것이다. 그는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라며 마음속으로 몸부림을 치며 절규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프랑클에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전의 삶의 의미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라는 말은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 이런 고뇌를 남이 아닌 왜 내가 받아야만 하는가? 라며,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는 우리에게, 나밖에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라는 질문이 아닌, 내가 답변자로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답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고통으로 가득한, 주어진 자신의 상황 전체를 나에 대한 물음으로 받아들여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답하는 자로서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임을 프랑클은 깨달은 것이다. 운명을 저주하며,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있기는 하나고 절망에 신음하는 것도 하나의 답변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누구나 필연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더 깊은 고뇌에 빠진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프랑클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에 의해 스스로를 답변자로서 받아들였을 때, 즉 그 자신이 이 ‘고뇌에 찬 운명’ 을 자신에게 되물었을 때 그는 이 세계에서 그 자신만이 존재함을 알아차렸다는 사실이다. 왜일까? 그는 ‘누구든 그를 대신해 고뇌를 대신해줄 수 없다’ 고 말한다. 이는 강제수용소란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난 프랑클만의 문제가 아니다.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다. 스스로를 답변자로서, 전체를 물음으로써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인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본인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외는, 우리는 다수 중 한사람에 지나지 않으며, 그러한 우리들은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을 부정하고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며, 방만이다. 그러나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은 채, 내가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이란 사실이 명확해지는 곳이 있다. 프랑클이 ‘삶의 의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 표현한 것은 이와 같은 경우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선택에 강요당하는, 즉 어느 쪽을 택할지 고심하는 상황이 아니다. 설령 이 선택이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진 장소이다. 그러니까 이는 기독교 속에서 부정된 율법주의, 자신의 과업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말이 아니다. 프랑클은 인간이 진실로 거기서 사는 것이 허락되는 ‘곳’ 그곳이야말로 살아갈 용기를 주는 장소임을 발견해낸 것이다.

II. 무신론적인 질문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개진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현대적인 문제로서 무신론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다. 그 질문을 도스토예프스키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⁵⁾에서 차남인 이반의 입을 통해 전하고 있다. 한마디로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모든 행위가 “용서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란 소설 속에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인물, 차남이자 무신론자인 이반의 사상으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아직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반은 또 오늘 우리처럼 신이나 자신의 불멸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의 도덕률이 기존의 종교적인 것과는 완전히 판판으로 바뀌어야 하며, 또한 악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기주의가 인간에게 허용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꼭 필요하고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고상한 결과로 인정돼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역설에서 본다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기인이자 역설가인 이반 효도로비치가 강조하고 주장한 다른 고매한 학설도 쉽게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례지만...잘못 들은 것 같아 여쭙보겠는데 무신론자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악행은 허용될 뿐 아니라 가장 현명한 행위로 인정돼야 한단 말인가요?” 하고 느닷없이 도

미토리 효도로비치가 묻는다. “말 그대로입니다. 기억해둡시다.” 라고
파이시신부가 말하자 도미토리 효도로비치는 방금 전 불쑥 질문해 온 것
처럼 황급히 입을 다문다.⁽⁶⁾

세계의 창조자, 모든 법칙과 규정의 제정자로서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살인
이든 능욕이든 뭐든 제멋대로 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의 제정자, 심판의
집행자로서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 받을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 생
각하는 대로 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무엇이든 용서된다’ 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진정한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이는 조금 전 프랑클의 경우에서 보았
듯이 이런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상황에서 그렇다면 ‘너는 이
자유로운 장소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란 질문에 필
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반의 물음은 19세기말에 유라시아대륙에 깊이 자리한 러시아 땅에서 불쑥
튀어나온 허무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18세기 철학자인 칸트는 알고있었으며 그리고 그 핵심을 간파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는 극히 찬양 받은 모든 사변적 논증의 약
점으로 동요를 느끼고 또 하나는 자연 및 감성계 속에서 그가 만난 다수
의 불규칙적인 사정으로 동요를 느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는 명
제에 설득 당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런 이유로 의무의 모든 법칙을
단순히 공상하여 타당성이나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거리낌없이 무
시하겠다고 결심한다면 그는 또한 자신의 눈에도 비참한 인간으로 비취
질 것이다. 이런 사람은 최초로 그가 품은 의문을 그 후에 확신할 수 있
게 된 경우라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여전히 비굴한 인간으로 남을
것이다. 설령 그가 자신의 의무를 그러나 공포나, 보수를 구할 의도에서
의무를 경외하는 신념 (Gesinnung) 없이 그 결과에서 본다면 매우 엄
격하게 성취했다고 해도 그렇다. 역으로 그가 자신의 의무를 신앙인으
로서 자신의 의식에서 말하자면 정직하게 사욕 없이 준수했음에도 불구
하고 자신이 언젠가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경우를 마음
에서 가정할 때마다 모든 인륜적 구속성에서 바로 헤방된다고 믿는다면 역
시 그 내면의 내적인 도덕적 신념은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⁷⁾

칸트는 사람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에 설득 당해 확신하고, 그 때문에 의무의 법칙에서 벗어나 그런 법을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진정 그것이야말로 스스로가 비굴한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한다. 자신을 억제한 후 생각을 바꿔서 신이 존재한다고 확신하게 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의 존재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다시 무슨 짓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비굴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것은 왜인가? 의무의 수행이 신의 징벌이 두려워서, 혹은 신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 일 자체부터가 비겁하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칸트의 종교성 문제, 즉 우리의 도덕성은 신앙성과 연관이 없는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깊이 들어갈 수는 없다. 나는 칸트의 깊은 종교성을 인정하는데, 다만 칸트의 신은 법의 위반자를 처벌하는 재판관이나 훌륭한 행위를 표창하는 위정자는 아니란 사실이다. 신이 이런 존재자라고 가정할 때 정말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진정한 문제는 이런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란 질문 앞에 서는 것이다. 이는 진정 프랑클이 말한 코페르니쿠스적인 질문의 전환의 입장에 서는 것이다. 거기서 비로소, 내가 무엇을 바라고 실현하고자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왜 범죄를 저지르려 하며 이기주의에 투철해지려고 하는지, 그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허용되니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하지 않은 지, 바로 그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칸트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이제야 저 본 회퍼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그는 처형되기 1년 전쯤에 감옥에서 그의 깊은 사상을 아래와 같이 남겼다.

44년 7월 16일

설령 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인식 없이는 우리는 성실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신 앞에서 인식하는 것이다. 신 자신이 우리를 이 인식으로 인도한다. 성인이 됨에 따라 우리는 신 앞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진실을 인식하도록 안내 받는다. 신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신은 우리에게 가르친다. 우리와 함께하는 신은 우리를 떠나는 신 (마가 15, 34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 것이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신

이라는 작업가설(作業假說) 없이 살게 하는 신은 우리가 그 앞에서 늘서 있는 신이다. 우리는 신 앞에서, 신과 함께, 신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신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십자가로 몰았다. 신은 이 세상에서는 무기력하고 연약하며, 그리고 진정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만이, 신은 우리의 근원이며, 우리를 구원한다. 마태복음 8장 17절의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가 구원하는 것은 그 전능한 힘이 아닌, 나약함과 고통에 의해서인 것이다. 여기에 모든 종교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인간의 종교성은 인간이 곤궁에 처해 있을 때 신의 힘에 이목을 집중한다. 신은 기계적인 신이다. 성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신의 무력과 곤란에 이목을 집중하도록 한다. 오로지 고난을 받은 신만이 구원을 할 수 있다. 그 전체하에 그릇된 신에 대한 관념이 불식되는 세계의 성인성으로 앞서 말한 말전은, 성서의 신에 대한 눈을 열게 한다. 이 신은 이 세계에서 자신의 무력함으로 힘과 장소를 얻는 것이다. 이 세간적 해석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⁸⁾

칸트는 별의 협박과 보상이라는 미끼로 사람의 행위를 몰고 가는 신을 거부한다. 그리고 본회퍼는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기계적인 신을 완전히 단념한다. 그가 ‘신 없이 신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을 때 그 처음의 ‘신 없이’란 말은 칸트의 협박과 보상으로 유혹하는 신이며, 본회퍼 자신이 기계적인 신이라 일컬은 것을 가리킨다. 본회퍼는 그런 힘이 되는 신을 단념하고 죽음과 병을 짊어진 인간의 나약함에 머무르고자 결심했다. 나약함에서 신을 드러내는 성서의 신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협과 힘의 ‘베일’이 제거된 후에 나타나는 ‘신’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칸트도 본회퍼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말로 쉽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이 표현하자면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졌던 장소를 다만 홀로 물음에 답하는 궁극의 장소로서 받아들이라고 재촉하며 격려하는 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아우구스티누스의 메시지를 인용해보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이 세상 혹은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그 권력을 통해 (*per istas potestates*) 구하는 자는 장소가 아닌, 생각의 차이에 따라 (*non intervallis locorum, sed diversitate affectuum*) 신에게서 멀어지고 추방당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다 멀리 밖으로 나가려고 애쓰며 스스로의 깊은 내면 (*interiora sua*) 을 버리고 떠나가지만, 신은 그 깊은 내면 보다 더 깊은 내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interior est Deus*)⁽⁹⁾

아우구스티누스도 신에 대한 기도가, 힘을 구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도와줄 힘 있는 자에 대한 기도가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신과 멀어짐을 알았다. 그 요원함은 장소적 차이가 아닌 생각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을 벌을 주는 자로서 두려워하여 가까이 하는 자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되면 반드시 사랑의 행위가 악행으로 기울고 만다. 마음 속 깊은 내면에서 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일이 명확히 드러나는 장소를, 스스로의 깊은 내면 (*interiora sua*) 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세계의 한 구석으로서의 조금 더러워진 심리적 내면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비록 알아차리지 못한다 해도 그 안에 진실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깊은 내면’ 이며, 이 깊은 내면보다 더 깊은 내면에 우주, 세계의 창조주이신 신이 존재한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언급하고 있다. 나는 이 장소가 프랑클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의 장소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장소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주

- (1) Franz Kafka, *Vor dem Gesetz*, 1915, in: Franz Kafka, *Die Romane* (Amerika, Der Prozeß, Das Schloß) (Berlin: Schocken Verlag, 1935), S.432-434. 줄역.
- (2) V. E. フランクル <V. E. 프랑클> 『夜と霧——ドイツ強制収容所の体験記録〈밤과 안개——‘독일강제수용소의 체험기록’〉, 霜山徳爾訳〈시모야마 토쿠지 역〉, みすず書房〈미스즈서방〉, 1961년, 166쪽. (Viktor E. Frankl, ... *Trotzdem Ja zum Leben sagen: Ein Psychologe erlebt das Konzentrationslager* (München: Kösel Verlag, 2002), S.107f. 원제는 『……그래도 삶을 긍정한다. 한 사람의 정신병리학

- 자, 강제수용소를 체험하다』. 강조를 위한 방점은 저자 표시)
- (3) 같은 책, 182-183 쪽. (Frankl, a.a.O., S.124f. 강조를 위한 밑줄은 필자 표시.)
 - (4) 같은 책, 184-185 쪽. (Frankl, a.a.O., S.126. 강조를 위한 방점은 저자 표시. 밑줄은 필자 표시)
 - (5) Фёдор Михайлович Достоевский, Братья Карамазовы, *Русский вестник*, 1879-1880.
 - (6) ドストエフスキー 〈도스토예프스키〉 『カラマーゾフ兄弟II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II〉』, 小沼文彦訳 〈코누마 후미히코 역〉, 世界文学全集 第33 〈세계문학전집 제33〉 ドストエフスキー 〈도스토예프스키〉, 筑摩書房 〈치쿠마서방〉, 1967년, 64 쪽.
 - (7) カント 〈칸트〉 『判断力批判 〈판단력비판〉』 87節 〈87절〉, 原佑訳 〈하라 타스쿠 역〉, 『カント全集8 〈칸트전집8〉』, 理想社 〈이상사〉, 1965년, 418-419 쪽. (Immanuel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Berlin, 1913), S.451f.)
 - (8) ボンヘッフアー 〈본회퍼〉 『抵抗と信従 〈저항과 복종〉』, 倉松功, 森平太訳 〈구라마쓰 이사오, 모리 헤이타 역〉, ボンヘッフアー選集 第5 〈본회퍼 선집 제5〉, 新教出版社 〈신교출판사〉, 1964년 참조. (D. Bonhoeffer, *Widerstand und Ergebung* (Gütersloh, 1951), S.192f. 강조를 위한 밑줄은 필자 표시.)
 - (9) アウグスティヌス 〈아우구스티누스〉 『三一神論 〈삼일신문〉』, 私訳 〈졸역〉. (Aurelius Augustinus, *De trinitate*, VIII,7,11. 강조를 위한 밑줄은 필자 표시.)